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비용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1월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가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이 대폭 상향되어 예방접종비의 본인부담금이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의료기관 1회 접종에 평균 2만 2천원씩 하는 예방접종비 중 1만 7천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백신종류에 상관없이 1회 접종에 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백신 2종(DTaP-IPV 콤보백신, Tdap)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도입한다. (8종→10종)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 예방접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시부터 예방접종 전산등록을 실시해 보호자와 의료기관이 어린이 예방접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아이에게 위험한 바이러스성 장염, 겨울철에 더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A08)'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6년 448,170명에서 2010년 613,778명

으로 5년간 약 16만 5천명 진료인원이 증가(37.0%)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나타났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바이러스를 병원체로 하는 급성 장염이며 유아에게 특히 많고, 학교, 시설, 가족 내 등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꼽힌다. 이들 바이러스의 경우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생활환경에 잠복해 있을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위생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실내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감염확산 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있다.

특히 10세 미만에서 많이 발병하는 소아 장염의 경우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어른의 경우 배탈과 설사를 한다고 해도 장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탈수 진행이 빨라서 체내 수분의 10%만 빠져도 위중한 상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고 아이들의 손이 많이 닿는 장난감이나 우유병은 자주 살균하는 것이 좋다. 장염이 심한 경우 굵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분 섭취 부족으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죽, 끓인 물을 섭취하여 체내 수분과 영양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개정안 공포 · 시행

●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